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were utilized
Group Activ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

봉은주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EunJu Bong(b-e-j@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한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연구이다.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편성한 후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00분씩, 13회기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하였다. 연구도구는 Shlein과 Guerney의 대인관계 측정도구와 Ayres가 개발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고, PASW 18.0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심어 : | 인간관계 | 의사소통 | 자기효능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n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when their group activities were performed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This study employed one group pre test-post test study design. This course consisted of a total of 13 sessions, and was conducted for 100 minutes per session every week from September to December in 2012. Questionnaires were from Relationship Change Scale of Shlein and Guerney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developed by Ayres. Also,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whole 161 case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along with PASW 18.0.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cor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light of these results, the application of this curriculum has an effe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Accordingly, this study can be provided as basic data in order to develop and utilize the curriculum that can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 keyword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 Self-efficacy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보건의료직종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를 유지하고, 환자들과도 가장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상실무현장에서 간호사가 동료 간호사나 타 직종의 전문가와 주요 고객인 환자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술을 갖는 것은 관계 유지의 측면뿐 아니라, 환자에게는 간호서비스의 만족도[1]나 보건의료종사자들 간에는 직무만족도[2][3]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환자들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예비간호사로서 많은 간호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고교생활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 입학 후에도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으로 인해 적응상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인간관계의 경험의 부족, 의사소통 기술과 자신감 부족 등으로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4].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나 전공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5], 의사소통능력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김희숙, 박완주, 하태희[7]는 간호대학생들이 보다 성숙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간호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치료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발달시키는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특히 박향진[9]은 일반간호사와 정신간호사 모두 의사소통훈련을 받은 경우에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촉진적 의사소통 능력인 공감능력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과과정 속에서 핵

심기술로써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과목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10]에서는 학부과정을 마친 간호사의 12개의 핵심역량 중에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나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하여,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목 운영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관련 교육은 대부분이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임상상황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에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인간관계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기존의 이론 중심의 의사소통 교과목에서 탈피하여 소집단활동, 인간관계훈련과 체험, 역할극 등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4][11][12]. 이를 위해 몇몇 연구는 실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수강하는 일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고[13-15],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하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 운영 후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다[16][17]. 특히 김선아, 박정화, 이현희[4]는 집단활동을 통합한 의사소통 교과목이 강의 위주의 의사소통 교과목보다 대인간 의사소통, 대인관계 변화, 자존감, 우울점수가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간호대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과목 내용이 재편성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교과목 외에 집단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형 강의실에서 50~60명 정도의 간호대학생들에게 한꺼번에 교육해야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열악한 강의실 환경,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대집단으로 운영하면서도 강의식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7-8명 정도의 집단을 구성하여 인간관계훈련과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여 집단 내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활동을 통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이론 위주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교과내용을 편성하여 운영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교육의 교과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정으로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내용을 편성하여 운영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한다.
-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단일군 사전-사후 실험설계(one group pre test-post test design)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남도 소재한 C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하는 총 180명이었으며, 최종 연구 분석은 연구 도중에 발생한 휴학자, 결석자,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161명이었다.

3. 연구도구

3.1 대인관계

Shlein, Guernsey와 Stover[18]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전석균[1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서혜석[20]의 연구에서 요인 분석 하여 분석한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민감성, 친근감의 5개의 하위영역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의 Likert식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 가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3.2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Ayres[21]가 개발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간호대학생이 자신이 의도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 10문항으로, 7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 가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4. 실험처치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8월에 이론 강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경험하도록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인간관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은 C대학 간호학과 1학년 2학기에 전공기초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2학점 2시간으로 운영된다. 교과목 운영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주 수업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주 1회, 100분씩 총 13회기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1회기에, 사후조사는 13회기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교수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강의 시작 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 작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대상자가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설문지 응답을 거부할 수 있게 하였고,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교육목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관계훈련을 통해 자기인식을 향상시키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하여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세웠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내용은 1회기~8회기는 자기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관계 증진 훈련을 시행하였고, 9회기~13회기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도록 내용을 편성하였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은 1학년 2학기에 편성되어 있고, 총 3분반으로 운영되었는데 한 분반에 60명 정도의 간호대학생들이 수강하였고,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이름이나 인식하는 정도였고, 친밀감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집단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7-8명으로 구성된 조를 편성하도록 하였고, 집단 내의 토론을 촉진하고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기 위해 매 회기마다 조원들은 함께 모여 그날 경험한 집단활동에 대한 느낌을 기록하고 성찰하도록 하였고 개별발표와 동료평가를 성적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매 회기마다 주제를 제시하고 집단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하였고, 각 조에서 토론하거나 결정한 내용에 대해 전체 집단에서 발표할 때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1회기에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사전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를 편성하고 조원들의 역할을 결정하고, 팀 명칭과 규칙을 정하고, 조원들의 별칭을 짓도록 하였다. 2회기에는 개별 명칭과 각 조원들의 별칭을 소개하고 발

표하도록 하였고, 인간관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로 마무리 하였다. 3회기에는 전체 분반 학생들이 1:1 만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2개의 원을 그리며 서서 구호에 맞춰 이동하다가 '반갑습니다'를 외치며 인사하며 지시대로 서로에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하며, 전체 분반 학생들 앞에서 서로에 대한 경험을 발표하고 나누도록 하였다. 4-5회기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자기인식과 자기노출을 경험하도록 집단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가치관 경매를 통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였고 각 조에서 조원들끼리 토론 후 전체 수업에서 발표하도록 격려했다. 6회기는 자아 상태와 자신의 삶에 대한 생활 자세를 체크하게 하고 강의방법으로 설명하였고, 7-8회기에는 영화 '굿 윌 헌팅'을 시청하게 한 후 의미 있는 명대사, 소감 등을 발표하게 하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성격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토론하게 하였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성찰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소통 교과목의 개별 보고서인 자기이해 보고서를 영화시청 이후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9회기에는 의사소통의 일방통행과 쌍방통행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도형그리기'를 하도록 하였고, 의사소통의 과정, 구성요소, 방해요인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10회기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차이를 비교하게 하였고,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인 경청하기를 2인 1조 짝을 지워 경험하게 하였다. 11회기에는 공감하기를 경험하도록 상황을 설정하여 제시하여 답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12회기에는 관찰과 느낌을 표현하고, 나 전달법을 연습하게 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13회기에는 집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제를 주고 토론하여 발표하도록 하였고, 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표 1].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실험군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표 1.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내용

회기	분류	교육목표	교육내용	방법
1회기	자기이해를 증 가시키기 위한 인간관계훈련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사전 설문지 작성 · 인간관계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 · 조편성, 팀 명칭과 규칙정하기, 별칭 짓기	집단토론, 강의
2회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인간관계의 시작 경험하기 · 조별발표(팀명, 규칙정하기, 별칭으로 자기소개) · 인간관계는 성공적인 삶의 기본: 강의	집단토론, 발표, 강의
3회기		인간관계의 시작인 타인과의 만남의 과정을 경험한다.	· 타인과의 만남 경험하기	집단토론, 발표
4회기		인간관계를 위해 자기인식과 자기노출을 인식하고 시도한다.	· 나는 누구인가?~ 자기인식과 자기노출 경험하기 · 자기개방과 조아리의 창: 강의	집단토론, 발표, 강의
5회기		자신의 중요한 가치와 장단점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노출할 수 있다.	· 나는 누구인가- 가치관 경매하기 활동 · 자신의 장·단점 발견하기	집단토론, 발표
6회기		자신의 자아상태를 분석한다.	· 자아상태와 생활자세 분석하고 나누기	집단토론, 발표
7회기			· 영화 '굿 윌 헌팅' 시청하고 소감쓰기	동영상 시청
8회기		영상을 통해 어린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자아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 영화시청 후 명대사, 느낀 점 발표하기 · 영화를 통해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자신의 성격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성찰하고 자기이해 보고서 작성하기	집단토론, 발표
9회기	효과적인 의사 소통 기술훈련	의사소통의 과정을 경험하고 의사소통 기술 훈련의 필요성일 인식한다.	· 의사소통의 일방통행과 쌍방통행 경험하기-도형그리기 · 의사소통의 과정, 구성요소, 방해요인: 강의	집단토론, 발표, 강의
10회기		자신의 경청능력에 대해 점검하고 경청기술을 적용한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적용하기 1- 경청하기 경험, 경청능력에 대한 자가평가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비교	집단토론, 역할극, 발표, 강의
11회기		공감기술을 경험하고 연습한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적용하기 2- 공감하기 경험하기, 공감연습하기	집단토론, 역할극, 발표
12회기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적용하기 3- 관찰과 느낌 표현하기, 나 전달법 연습하기	집단토론, 발표, 강의
13회기		집단안에서 문제해결을 하기위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 집단에서 자기표현하기 · 사후 평가후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소감 나누기	집단토론, 발표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으로 남학생이 21.1%, 여학생이 78.9%를 나타냈으며, 평균 연령은 21.24세였으며, 종교는 무교가 4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34.8%로 많았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3.0%, 없는 경우가 87.0%로 나타났다[표 2].

2. 대상자의 대인관계 점수 변화

대상자의 대인관계 점수는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전 평균 86.71점에서 실험 후 93.0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하위영역별로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민감성, 친근감 모두 실험 전·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3.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점수 변화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점수는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전 평균 37.00점에서 실험 후 평균 39.1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61)			
변수	항목	N (평균)	% (표준편차)
성별	남	34	21.1
	여	127	78.9
연령	평균연령	21.24	3.55
종교	무교	75	48.4
	기독교	54	34.8
	천주교	19	12.3
	불교	5	3.2
	기타	2	1.3
의사소통 유사 교과목 수강경험	예	21	13.0
	아니오	140	87.0

표 3. 대상자의 대인관계 점수 변화

(N=161)

변수	사전	사후	차이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인관계 (total)	86.71 (9.28)	93.06 (10.19)	6.35 (8.11)	9.936	<.001
만족감	24.30 (2.92)	26.50 (2.92)	2.20 (2.96)	9.426	<.001
의사소통	24.87 (3.07)	26.30 (3.37)	1.43 (3.04)	5.983	<.001
신뢰감	13.81 (2.12)	14.50 (2.06)	0.68 (2.34)	3.712	<.001
민감성	13.84 (1.80)	15.14 (2.05)	1.29 (1.93)	8.484	<.001
친근감	9.88 (1.89)	10.63 (1.88)	0.75 (1.51)	6.283	<.001

표 4. 대상자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점수 변화

(N=161)

변수	사전	사후	차이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37.00 (6.51)	39.17 (5.78)	2.17 (6.69)	4.021	<.00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편성하여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학생 수(3분반, 180명)와 2 학점, 주당 2시간으로 운영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학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을 기존의 이론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 훈련을 경험하도록 하여 자기이해를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교육내용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 자기인식을 향상시키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하여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교육목표를 둔 것에 근거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1회에서 8회기까지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간관계훈련을 실시하였

고, 9회기부터 13회기까지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의 구성은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개방적인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 박영숙, 임숙빈, 김현숙[17]의 견해를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육방법은 집단을 7-8으로 구성하여 매 회기마다 관련주제에 대해 집단토론과 발표를 격려하고, 집단활동 후 조원들이 모여 자신들이 경험한 느낌을 서로 나누고 성찰일지를 쓰도록 하였으며, 7회기에는 동영상 시청, 10, 11회기에는 역할극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이는 집단활동, 역할극, 비디오 시청, 시범하기, 음악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접목시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했을 때 보다 효과적이었다는 선행연구[4][12][17]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이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단활동이 필수적이라는[4]의 견해를 반영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이수한 실험집단에서 대인관계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대인관계의 하위영역 중에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민감성, 친근성의 5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실험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 서혜석[20]의 연구,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신경아, 이은숙[14]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소집단을 이용하여 8주의 집단상담 방식으로 운영한 서혜석[20]의 연구나 신경아, 이은숙[14]연구와는 달리 대형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13회기 운영한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간호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을 강의실 환경에서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측정한 선행연구[4][11][12][16]와도 일치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13회기의 교육내용 중 자기이해를 강조한 인간관계훈련에 비중을 두어 8회기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는데, 선

행연구[4][11][12]는 대부분 2-3회기의 교육내용을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훈련의 비중이 적었고 의사소통기술 중심으로 진행하여 실험군내에서는 변화가 나타났으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으며, 원정숙, 신현숙[11]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기술에서만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이해를 보다 강조하여 구성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고, 집단활동을 하면서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경험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집단활동을 한 후 조원들끼리 느낌을 나누고 기록한 성찰일지에서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과 일치된 기록이 발견되었다. 학생들 대부분은 1학년 대학생활 동안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집단활동을 통해 자신을 조금씩 표현하는 것을 경험하고, 집단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좋았다고 기술하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에게는 임상현장에서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에서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이해를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 의사소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7][15]. 또한 선행연구들은 의사소통 훈련 방식이 강의나 이론 중심일 때 효과적이지 못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참여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운영방식이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어[15][22][23],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의사소통 교과목 이수 후에 실험집단에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점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기간 동안에 집단활동과 조별 발표를 통해 보다 활발하게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하였고, 6회기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을 보다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의사소통 능력 증진프로그램이 학습동기,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능력증진에 모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오연재[24]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오연재[24]의 연구는 본 연구와는 달리 소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표준화 환자 실습으로 구성된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향상됨을 나타내었다.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 뿐 아니라 임상간호사에게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이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데, 간호사가 불안상태가 낮고, 교육수준이나 경력이 많을수록 높으며, 의사소통교육을 받은 경우에 높게 나타난다[8][9]. 또한 시뮬레이션이나 표준화 환자, 실제 환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한 것이 전통적인 강의 위주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보다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24], 다양한 의료팀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간호학과 저학년에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하고, 간호학과 고학년이나 졸업한 간호사들에게도 임상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간호대학생들이 저학년에서부터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고학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적용하여 저학년 때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하고, 3, 4학년 때 표준화환자, 시뮬레이션, 실제환자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임상상황에서의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한 후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측정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

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은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학생 수와 집단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강의실 환경, 교과목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운영 가능한 수준에서 교과목을 운영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운영상의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도 이론중심의 강의방식에서 탈피하여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여 활발하게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문제만을 다루어 3,4학년 임상실습 시 환자나 보호자 등과 의사소통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임상상황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이나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실질적인 의사소통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조군을 설정하지 않고 단일 군에서의 변화만을 검증하였으므로 연구결과에 대해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수자가 직접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실험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점을 고려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편성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100분씩, 13회기의 과정이 주어졌으며 강의 시작 전과 종강 시에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결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시키기 위해 인간관계

와 의사소통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타 대학에서도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이론중심의 강의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타 대학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집단활동을 활용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과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뮬레이션이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임상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의사소통 훈련 교과목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대인관계와 인간관계에 대해 자기보고형 설문지를 통한 측정은 실제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세현, 입원환자가 지각한 간호사의 의사소통과 신뢰 및 간호서비스 만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2] 박예린, 양수, “간호관리자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간호사의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임파워먼트”, 정신간호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42-352, 2008.
- [3] 서이아, 박경민, 이병숙, “일반간호사의 조직 내 의사소통 유형과 직무만족 및 간호업무성과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7권, 제2호, pp.317-332, 2003.
- [4] 김선아, 박정화, 이현희, “집단프로그램 통합적 의사소통 교과목 운영의 개발과 효과”, 한국간호과학회지, 제34권, 제3호, pp.412-420, 2004.
- [5] 구현영, 임형성,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11-321, 2013.
- [6] 박정원, 최명숙, “간호대학생의 자의식,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351-360, 2009.
- [7] 김희숙, 박완주, 하태희,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29-237, 2006.

- [8] 김승희, 정신 간호사의 촉진적 의사소통 양상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9] 박향진, 정신병동 간호사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공감능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0]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성과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워크숍,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2.
- [11] 원정숙, 신현숙, “소집단 역동을 이용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4권, 제2호, pp.60-66, 2008.
- [12] 김선아, 한나래, 박정화, 김민정, 김현래, “의사소통 교과목에서 소집단활동과 음악활동의 적용 및 평가”, 정신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07-317, 2010.
- [13] 주지선,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4] 신경아, 이은숙, “의사소통 훈련 집단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49-158, 2011.
- [15] 임승주, 박은영, “사티어 의사소통 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변화 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3.
- [16] 현미열, 박은옥,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교과목의 효과 측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pp.5-11, 2008.
- [17] 박영숙, 임숙빈, 김현숙, “자기이해를 강화한 의사소통 간호교육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361-368, 2009.
- [18] S. Shiein, B. Guernsey, and L. Stover,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 [19] 전석균,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20] 서혜석, “대학생의 대인관계변화 향상을 위한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7권, pp.35-56, 2005.
- [21] H. W. Ayres,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005.
- [22] R. Parry, “Are Interventions to Enhance Communication Performance in Allied Health Professionals Effective, and How Should They be Delivered? Direct and Indirect Evidence,”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ling*, Vol.73, No.2, pp.186-195, 2008.
- [23] B. A. Mullan and E. J. Kothe, “Evaluating a Nursing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Cours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lated Ability, Satisfaction, and Actual Performanc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0, pp.374-378, 2010.
- [24] 오연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25] E. R. O'Shea and S. H. Campbell, “A Descriptive Analysis of Nursing Student Communication Behaviors,”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9, pp.e5-e12, 2013.

저 자 소 개

봉 은 주(EunJu Bong)

정회원

- 1998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1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9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현재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알코올중독 회복과 재활, 정신사회재활, 회복, 의사소통 기술 훈련